

원저

《傷寒論》 陽明病 提綱의 鍼灸學的 分經 및 定證의 運用方法에 關한 研究

김효정 · 정미경 · 이승우 · 백성욱 · 정기진 · 정웅채 · 황민섭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The Study on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 Based on the Study of Yang-Ming-Bing(陽明病) -

Kim Hyo-jeong, Jeong Mi-kyung, Lee Sung-woo, Baeg Sung-woog, Jeong Gi-jin,
Jeong Woong-cha, Hwang Min-seob and Yoon Jong-hwa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Sang Han Za Bing Lun · Xu Wen(傷寒雜病論 · 序文)》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Yang-Ming-Bing(陽明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Sang Han Lun》.

Results : 1.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 · 熱論)》.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疫癘) and Zabing(雜病).

2. Most commentators of 《Sang Han Lun》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Sang Han Lun》 interpreted the Yang-Min-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Stomach meridian and Large Intestine meridian.

· 접수 : 2007년 3월 10일 · 수정 : 2007년 3월 21일 · 채택 : 2007년 3월 21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Tel. 017-802-2624 E-mail : item0916@chol.com

3. From the *Liu-Jing-Bing* of *《Sang Han Lun》*,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Yang-Min-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Stomach of meridian · Large Intestine of meridian.

Key words :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summary of *Liu-Jing-Bing*. *Yang-Min-Bing*.

I. 序 論

先秦의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各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¹⁻³⁾, 漢代의 《靈樞》에서는 經脈에 解剖·生理·病理理論을 導入하여 循環路線의 確立, 經脈病候의 擴大, 三陰三陽에 따른 人迎寸口脈診法 및 鍼을 중심으로 灸, 刺絡, 藥物 등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經絡學說이 樹立되었다^{4,5)}.

《素問》 《靈樞》에서 鍼灸學과 醫論의 兩面에서 基礎적인 成就를 바탕으로, 東漢의 《難經》에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位 및 鍼灸를 體系的으로 論述하였다. 특히 獨取寸口診脈法, 左腎右命門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 등의 鍼灸에 關한 學說과 《五十八難》의 傷寒은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包含하는 ‘廣義傷寒說’을 闡發하였다⁶⁻⁸⁾.

東漢 末年에 湯液中心으로 著述된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太醫令인 王叔和가 醫書を 收集하고 整理하여 《脈經·卷七》에서 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의 治法에 따라 “可” “不可” 의 次例로 轉載하였고⁹⁾, 唐·孫思邈의 《千金翼方·卷九·卷十》을 바탕으로 唐本傷寒論으로¹⁰⁾, 北宋·林億 등은 校正醫書局의 校訂을 거쳐 定本인 《宋本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하여 傷寒學術 發展의 基礎를 마련하였다¹¹⁾.

金·元代는 龐安時의 《傷寒總病論》과 朱肱의 《類證活人書》를 中心으로 八綱辨證을 통하여 ‘辨證思想’이 重視되었고, 許叔微 《傷寒發微論》에서 ‘三綱鼎立’ 學說이 提起되었고, 明·清代는 ‘錯簡重訂’, 尊王(叔和)贊成(无己)을 주장하는 ‘維護舊論’, 同時에 ‘以方類證’을 위주한 ‘辨證論治’ 등의 學術類派가 형성되어 傷寒 學術이 發展하였다¹²⁾.

《傷寒論》 研究 方面에 있어서, 朱¹³⁾는 “傷寒의 治療에는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고 經絡을 알지 못하면 邪氣의 所在를 알 수 없다” 하였고, 呂¹⁴⁾는 “《傷寒論》의 六經病은 《素問·熱論》을 本으로 새롭게 發展시켰다” 하였고, 柯¹⁵⁾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다”고 하였으며, 山田¹⁶⁾은 “宋 以後의 《傷寒論》 文獻 및 醫學의 研究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의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論者는 《傷寒論》 六經辨證의 鍼灸學의 運用方法을 探索하기 위하여 《傷寒雜病論·序文¹⁷⁾》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病 中에서 陽明病 提綱^{14,18)}이 形成된 淵源 및 陽明病 提綱의 鍼灸學의 分經 및 定證의 方法을 研究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三陰三陽의 意義

陰陽은 觀物取象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素問·陰陽離合論》 “日爲陽 月爲陰”이라 하여 日月을 陰陽으로 나누고 《素問·天元紀大論》 “陰陽之氣各有多少, 故三陰三陽也”라 하여 氣의 多少가 分類의 基準이 되며 陽分은 太陽, 陽明(兩陽合明, 兩火并合) 少陽으로 多, 少, 盛의 三極이 形成되고, 陰分은 太陰 少陰 厥陰(兩陰交盡, 至絶作朔晦)으로 多, 少, 衰變의 三極이 形成되고, 《素問·至眞要大論》 “氣有多少, 異用也”라 하여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은

機能에 差異가 생긴다고 하였다.

先秦에서 ‘三陰三陽說의 史料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有力한 證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馬¹⁹⁾는 “兩部 古灸經은 《黃帝內經》의 祖本이며, 泰陽(或鉅陽), 少陽, 陽明, 少陰, 卷陰(或厥陰)으로 命名된 經脈이 있고 最初로 三陰三陽의 述語가 既述되어 있다” 하였다.

《黃帝內經》의 三陰三陽은 天時變化, 天人關係, 臟象, 經絡, 氣血, 形志, 診療, 脈象, 病能 및 標本 등의 醫論에 貫通되어 있으며¹⁸⁾, 《黃帝內經》과 中古 醫籍 가운데 不同한 三陰三陽의 29種 9大類의 經脈 生理特證 및 層次類 氣血盛衰類, 氣血多少類, 病理反應類, 脈診部位類, 日旬年의 週期類의 過去·現在·未來 및 晝夜變化를 포함하는 天人地의 相互交感, 自然界의 氣候變化에 따른 歷法 및 臟腑經絡의 定性·定位에 따른 氣血盛衰의 變化 등은 모두 三陰三陽을 經緯로 編成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²⁰⁾.

《素問》과 《靈樞》에서 言及된 經絡의 ‘三陰三陽’說에 關하여서는 《素問·皮部論》에는 皮部를 三陰三陽의 經脈을 基本으로 分區하고 外邪가 皮部에서 臟腑로 이르는 傳變을 論述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는 光明(心臟)을 중심으로 上下, 前後, 內外으로 區分하여 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의 部位 및 三陰의 太陰, 少陰, 厥陰의 部位를 分區하였다.

그리고 《素問·陰陽離合論》과 《素問·皮部論》에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 經脈의 機能을 開·闔·樞로 說明하였고, 《靈樞·根結》에는 開·闔·樞의 病理와 證候를 既述하고 있다. 또한 《靈樞·經脈》에서는 手足三陰三陽經의 循環理論을 確立하였고, 《素問·熱論》에는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外感 熱性病의 傷寒症狀를 六經으로 分類한 六經分證, 并病 및 死證에 關하여 論述하고 있다.

한편 陰陽은 宇宙萬物을 對象으로 하는 兩大分類이고 三陰三陽은 事物의 屬性에 對한 分類로 各各은 三으로 分類하는 方式이며 經絡의 三陰三陽說은 “三陰三陽의 開闔樞說”과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의 二種類가 있다²⁰⁾.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을 六經傳變으로 論述한 《素問·熱論》과 外感熱病을 三陰三陽의 概念으로 傳變, 診斷 및 治療를 體系를 갖춘 著作인 《傷寒論》에 關하여 姜⁸⁾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 하였고, 南

京²¹⁾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고 하였다.

醫史學的으로 살펴보면 三陰三陽은 馬王堆 漢墓 帛書에 처음 轉載되어 있고,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의 理論은 더욱 發展되고 完備되었다. 이후 《傷寒論》에서 그 理論 및 臨床應用에 飛躍적으로 發展하게 되었고 理·法·方·藥에 貫穿되는 辨證論治의 診斷 및 治療方法이 形成되었다¹⁸⁾.

2. 陽明病 提綱의 淵源

《傷寒論》의 제1조 “陽明之爲病, 胃家實也.”는 陽明病의 提綱으로서 《注解傷寒論·辯陽明脈證并治法上第五²⁵⁾》에서 提出된 것은 아니며, 《尙論·陽明病中篇²⁷⁾》에서 陽明病의 證과 脈의 要綱으로 說明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注·陽明脈證¹⁵⁾》에서 “陽明의 提綱은 《素問·熱論》과는 不同하며 裏證이 爲主이고 裏不和가 陽明病이며 胃家實이 提綱이 된다” 하였고, 《醫宗金鑑·訂正中景全書·傷寒論注·辨陽明病脈證并治上篇²⁹⁾》에서 陽明病의 脈·證을 包括하는 陽明病의 概括로서 此條의 位置를 格上시켰고, 陳³⁰⁾은 “此條는 脈과 經氣를 言及한 經脈病으로 ‘陽明經脈經氣說’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로 설명하고 陽明病의 總綱이다” 하였다.

《傷寒來蘇集·傷寒論注·太陽脈證²³⁾》 “仲景作論大法, 六經各立病機一條, 提揭一經綱領, 必擇本經至當之脈證而表章之” 하여 “六經提綱說”을 提唱하였고, 《傷寒貫珠集·太陽正治法·太陽病脈證三條³¹⁾》에서 此條를 “…… 故柯氏目爲六經之綱領, 而此則爲太陽之綱領也. …… 學者當參合他條, ……” 하여 六經의 各條는 各經의 脈과 證을 既述하고 있다는 ‘六經提綱說’을 認定하고 提綱에는 不足한 점이 있어 他條를 合參하여야 한다 하였고, 《傷寒論綱目·總論³²⁾》에서 六經의 提綱을 <六經主症> 篇을 構成하여 總論에 偏在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翼·全論大法第一²⁹⁾》 “六經病의 提綱은 六經의 發病이며 傷寒의 六經이 아니다. …… 陽明經의 提綱은 傷寒과 雜病을 合한 論旨이다” 하였고, 《傷寒約編·陽明證提綱³³⁾》에서 “陽明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陽明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基準이 된다” 하였다.

3. 陽明病^{22,23)}

(1) 陽明經의 生理

陽明은 《素問·至眞要大論》 “兩陽合明” 즉 陽之極이 되어 陽氣가 充盛하게 되며, 陽明 胃經은 飲食의 精微를 五臟六腑에 供給하며, 《素問·陰陽離合論》 “陽明主闔” 하여 陽明의 氣化는 陽氣의 內縮을 主하고 氣化는 內行下達하여 人身을 強健하게 하는 것을 闔이라 하고, 《素問·陰陽類論》 “維” “衛” 에 比喩하였다.

《素問·六味旨大論》에 陽明의 上에는 燥氣를 治하고 中에 太陰이 見하여 陽明은 表가 되고 濕이 本氣가 되며, 《素問·至眞要大論》에서 言及한 表本 中氣從化의 觀點에서 보면 陽明의 本은 燥土이고 標는 燥가 되는데 中見之氣인 太陰의 濕을 따라 氣化하여 調和하고 平靜을 維持할 수 있고, 또한 陽明은 惡燥喜濕하여 燥가 濕을 得하여 相濟되고 陽明의 中氣인 太陰의 濕氣가 不及하면 中氣를 따라 氣化하지 못하고 本氣를 따라 燥 혹은 表陽을 따라 熱로 氣化하게 되므로 中氣와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2) 陽明經의 病理.

陽明은 三陰의 裏로 ‘陽氣內縮’을 主管하며 그 氣化의 主된 作用은 內行下達하여 人身을 強健하게 維持하며, 陽明은 本氣의 燥 혹은 表氣인 表熱을 따라 氣化하여 熱證 陽證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外因, 內因 및 不內外因으로 陽明의 氣化가 失調되면 《傷寒論》 陽明病의 燥熱證, 胃家實의 正陽陽明의 症狀과 《靈樞·經脈》 大腸手陽明之脈, 胃足陽明之脈의 是動則病과 是主 ‘津液’ ‘血’ 所生病의 病至則惡人如火, 心欲動, 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賁響腹脹, 狂, 虐, 鼯衄, 喉痺와 陽明經이 循行하는 部位에 熱症의 證候가 나타나게 된다.

4. 陽明病 提綱의 研究

(原文) 陽明① 之爲病, 胃家實也②. (185)

傷寒三日, 陽明脈大③. (191)

(解釋) 陽明의 病은 胃(胃·大腸·小腸을 包含) 部가 實한 것이다.

傷寒三日의 陽明病의 脈象은 大하다.

(註解) ① 陽明 : 姜⁸⁾은 “陽明을 《素問·至眞要大論》 “陽明何謂也, 岐伯答曰 兩陽合明也” 《靈樞·經水》 “陽明 多氣多血” 하여 太陽과 少陽이 合한 것으로 氣血이 많아 陽氣가 極盛하다” 하였고,

陸³⁴⁾은 “陽明은 胃에 屬하며 中焦이다” 하였고, 吳^{29,35)}는 “陽明은 陽明經이며 內로는 胃, 外로는 肌를 診斷하며 陽明病은 經病과 府病으로 區分한다” 하였고, 黃³⁶⁾은 “陽明은 胃經이며 胃는 陽明의 府로서 陽明病에는 經病과 府病이 있고, 經은 傳輸를 主管하고 府는 受盛을 主管한다” 하였다.

그리고 楊^{8,22)}은 “陽明은 足陽明胃經과 手陽明大腸經의 機能을 包含하며 胃와 大腸으로 代表된다” 하였고, 黃³⁷⁾은 “《傷寒論》에서 手經과 足經은 同氣相求하며 足經은 身體에서 分豁된 部位가 크고 길며 氣가 旺盛하여 足經의 病이 深하고 手經의 病은 經하므로 足經으로 言及한 緣由이다” 하였다.

姜⁸⁾은 “陽明은 太陰과 表裏關係이며 陽明은 主燥 主降 主受納 腐熟收斂하고, 太陰은 主濕 主升 主運化傳輸하며, 陽明의 燥와 太陰의 濕은 相濟하며 陽明躁氣가 有餘하고 濕氣가 不足하면 陽明病이 되고, 陽明躁氣가 不足하고 濕氣가 有餘하면 太陰病이 되며, 陽明과 太陰의 相濟로 收斂의 受納 腐熟 運化傳導의 作用이 完成된다” 하였고, 陸³⁰⁾은 “陽明은 主闔, 收斂之精而藏하고 腹에 位置하고 …… 鼻 顴 牙齒 脣口 肌肉 四肢 大便 周身血脈을 主管하고 …… 天地의 礪氣는 陽明으로 別走한다” 하였다.

② 胃家實 : 《靈樞·平人絕谷篇》 “胃滿則腸虛, 腸滿則胃虛, 更虛更滿, 故氣得上下 五臟安定” 하여 胃腸의 正常的인 生理는 胃와 腸에서 虛實이 交代하여 受納 消化 및 傳導의 機能을 完成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柯²⁸⁾는 “陽明은 傳化의 腑로서 飲食이 入胃하면 胃實하고 腸虛하며, 消化가 되면 胃虛하고 腸實해지는데 飲食에 節度가 없어 胃와 腸이 實하기만 하고 虛해지지 않으면 陽明病의 病根이 된다” 하였다.

章³⁸⁾은 “胃家は 陽明經과 府를 統括하는 것이며 實은 受邪이다” 하였고, 龐²⁶⁾은 “實은 大便이 굳어 排出이 안 되는 것이다” 하였고, 余⁸⁾는 “食物이 積滯된 것도 實이고 熱邪가 積滯된 것도 實이다” 하였고, 尤³¹⁾는 “胃는 匯이며 收斂의 海는 陽明의 府이며 胃家實은 熱邪가 胃로 들어와 糟粕과 結合하여 實하게 된다” 하였고, 姜⁸⁾은 “胃家實은 糟粕과 邪氣가 結合하여 胃腸에 結滯되어 更虛更實의 失調로 傳導機能이 喪失되어 氣가 上下로 循行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③ 脈大 : 楊³⁹⁾은 “中診法은 不輕不重하여 肌肉部

位에서 按診하며 少陽과 陽明 二經의 脉을 察候한다” 하였고, 成²⁵⁾은 “傷寒三日에 陽明으로 邪가 傳變되면 陽明은 多氣多血하여 脉大하며 尺寸俱長者 陽明受病 當二三日發 하였다” 하였고, 龐²⁶⁾은 “傷寒三日의 脉大는 傷風의 大略을 말하는 것이며, 陽明은 氣血이 俱多하기 때문에 脉大한다” 하였고, 吳²⁹⁾는 “日數에 拘得받을 필요는 없으며, 三日脉大라는 것은 太陽陽明의 浮大·少陽陽明의 弦大를 不兼한 正陽陽明의 脉大이며, 表의 邪熱이 裏部로 轉入되어 內實을 이루는 것을 診斷한다” 하였고, 柯²⁸⁾는 “脉大는 內外가 陽의 象이며, 陽明의 初期는 病이 表에 있어 脉部하고 脉大하지는 않고, 傷寒三日에 熱勢가 大盛하면 脉象은 洪大하며 胃家實의 正脉이다.” 하였고, 姜³⁾은 “陽明은 多氣多血하여 陽氣가 最盛하며 外邪가 入裏하여 陽明을 侵犯하면 化燥 化熱하여 裏部에 熱盛하여 外部를 鼓動하여 脉大한 脈象이 나타난다” 하였다. 그리고 《素問·脉要精微論》 “大者 病進” 하였고, 楊³⁹⁾은 “尺寸俱長하면 陽明의 受病이며 浮長有力하면 兼太陽이며 …… 張大而有力量하면 解肌하며 …… 長洪 長滑有力하면 胃中實熱이며 攻下法을 施行한다” 하였다.

《傷寒論》 제185조의 陽明病 提綱은 胃家實이 陽明病은 아니며 陽明病은 胃實에서 由來되며 胃家實은 陽明經의 總剛이며 胃實은 下利의 相對의인 意味이며, 胃家實은 有實于未病先者, 有實而得病後者, 有風寒外來熱不得越而實者, 有妄汗吐下亡津液而實者, 有從本經熱盛而實者, 有從他經轉屬而實者 등이 있다. 그리고 陽明의 機能은 闔이며 裏證不和는 闔病이 爲主가 되며 不大便·不小便·不能食·食難用飽·初欲食 反不能食 등은 모두 闔이며, 自汗出 盜汗出은 表開而裏闔이며, 反無汗은 內外皆闔이며, 闔病은 胃家實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闔病이 陽明病 提綱이 아니고 胃家實이 陽明病의 提綱이 된다²⁸⁾.

그리고 陽明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包含하는 모든 疾病을 分經·定證하는 綱領이 된다.

Ⅲ. 考 察

近年에 發掘된 醫學方面의 帛書, 漢簡 및 漢牘 中에서 先秦의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十二經脈脈診 및 灸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으며¹⁹⁾, 《靈樞·經脈》에서 十二經脈의 循環路線, 經脈病候 및 人迎·寸口脈診을 運用하였고, 《難經》에서 手太陰의 太淵穴附近에서 五臟六腑를 診斷하는 六部定位脈診의 寸口脈診法에 依한 五輸穴을 運用하는 方法論을 提示하고 있다.

戰國 後期の 《五十二病方》에는 傷寒方面의 處方이 없고, 前漢의 《居延漢簡》에는 一個의 傷寒發汗治方이 있고, 東漢 初期의 《武威醫藥簡牘》의 《治百病方》에는 辨證論治의 雛形이 形成되어 外感傷寒의 處方에 對한 前承後啓의 役割을 하였고¹²⁾, 東漢 末의 著名한 醫家 張仲景은 古代 여러 醫論과 다양한 經方을 參考하고 臨床 經驗이 結合되어 《傷寒雜病論》을 著述하였다.

現存하는 《素問》의 <熱論>, <平熱論>, 《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寒熱> 등의 外感熱病의 專門의인 論述, 《難經·五十八難》의 ‘廣義傷寒’說, 脈診 및 汗下法의 可·不可 등과 先秦 및 秦·漢代의 藥物知識이 總結된 《神農本草經》의 前身인 《胎臚藥論》 및 《漢書藝文誌》의 經方 등은 《傷寒論》의 著作에 撰集되고 選用된 醫學理論 및 先驗方劑의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40,41)}.

그리고 唐²⁴⁾은 “《漢書藝文誌》와 《鍼灸甲乙經》에 根據하여 보면 仲景의 書는 《內經》에 本을 두고 있으며, 伊尹, 扁鵲, 倉公의 湯液法을 繼承하였고 …… 醫門의 仲景은 儒門의 孔子와 같은 意味가 있다”고 하여 《傷寒論》의 醫史學的인 意義를 說明하였다.

최근 傷寒論에 關한 研究에 있어 姜⁸⁾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日本의 山田¹⁶⁾은 “宋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인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하였고, “戰國後期の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 出土 醫書의 《十一脈灸經》과 《五十二病方》을 보면 藥物療法과 鍼灸療法은 각각 獨立의으로 發展하였고 …… 解剖學的인 發達, 循環器와 內臟 및 經絡과 臟腑의 連繫는 藥物療法과 鍼灸療法을 兼用할 수 있는 理論의 基礎的인 道路가 創立되었고 …… 《傷寒論》은 經脈學說에서 發展된 脈診法을 藥物療法에

導入하여 體系化하였다” 하여 《傷寒論》이 經脈學說과의 理論的 連貫性이 있음을 논술하였고, 金²³⁾은 “《傷寒論》의 六經病은 三陽症과 三陰症을 概括한 것으로 基本的으로 十二經脈의 手足同名經의 病候를 精簡, 補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의 六經構成과 《內經》의 構成體系에는 첫째 太陽病 中에 手太陰經과 肺臟病證이 包含되어 있고, 둘째 太陰病에서는 足太陰經과 脾臟病症 뿐이고, 小腸은 陽明에 隸屬시키는 差異점이 있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病과 《內經》의 經絡體系와의 連貫성과 差異點을 說明하였다.

論者は 六經病의 脈과 證의 關係에 對한 考察은 經脈病候와 寸口脈을 相互補完하는 鍼灸療法의 研究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傷寒雜病論·序文》에서 引用한 文獻을 根據하여 經脈의 理論 및 病候를 六經病과의 相關性을 찾고, 六經 가운데 陽明經 提綱이 形成된 淵源과 意義 및 陽明經 提綱을 利用한 鍼灸學적 分證, 分經의 方法을 연구를 進行하였다.

宋, 明 및 清代 大部分의 《傷寒論》의 注家들은 제1조의 “陽明之爲病, 胃家實也”의 陽明病을 人體의 肌肉을 主管하며 多氣多血하여 陽氣가 極盛하여 化熱 化燥하는 六經의 氣化的인 面에 陽明經病과 府病으로 區分하여 註釋하고 있으며, 柯¹⁵⁾는 “仲景 六經의 總綱은 《素問·熱論》과 不同하고 陽明은 裏證의 裏不和에 重點을 두고 經絡의 病候에 重點을 둔 것이 아니다” 하였고, 西³³⁾는 “此條를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陽明病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하였다.

單⁴³⁾은 “《傷寒論》은 臟腑 經絡 및 氣化學說이 融合되어 辨證論治⁴⁴⁾의 體系가 貫通되어 있다” 하였고, 楊²²⁾은 “《傷寒論》의 六經氣化的인 實在는 手·足 三陰三陽經의 經絡氣化學說의 反映으로 …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氣化學說은 傷寒六經氣化的인 整體理論이며 縱橫으로 傷寒 六經間의 相互關係를 闡述하고 있다” 하였고, 吳⁴⁵⁾는 “用藥은 《傷寒論》의 六經分證으로 治病하고, 用鍼은 《奇經八脈》의 八脈交會八法으로 治病한다” 하였고, 또 “鍼灸와 藥物의 治病의 原理는 一致하며, … 用藥은 三因(外因 內因 不內外因)을 區分하여 治療하고, 用鍼은 三因의 區別없이 何經의 寒熱虛實을 살피 施術을 한다” 하였다.

陽明病 提綱의 “胃家實”의 證候에 관하여 余⁸⁾는 “食物이 積滯된 것도 實이고 熱邪가 積滯된 것도 實이다” 하였고, 尤³¹⁾는 “胃는 匯이며 收穀의 海는 陽

明의 府이며 胃家實은 熱邪가 胃로 들어와 糟粕과 結合하여 實하게 된다” 하였고, 姜⁸⁾은 “胃家實은 糟粕과 邪氣가 結合하여 胃腸에 結滯되어 更虛更實의 失調로 傳導機能이 喪失되어 氣가 上下로 循行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였고, 柯¹⁵⁾는 “心을 三陽의 夾界로 삼아 ‘外自頭顱 有面至腹, 下及于足’을 陽明地面(六經地面說)」으로 새롭게 解釋하고, 《陰陽離合論》 “陽明主闔”을 根據로 胃家實이 陽明病의 提綱이 된다” 하였다.

그리고 《傷寒論》의 鍼灸學에서의 運用 方法은 三陰三陽의 經絡辨證과 《傷寒論》의 研究方法 中에서 辨證論治派¹²⁾의 “分經論證”의 條門에 따른 針灸處方을 構成하는 方法과 “以方類證”의 方劑의 運用 方法에 따라 鍼灸處方을 構成하는 方向으로 追究되고 있다.

19C 末葉의 李⁴⁷⁾는 《傷寒論》을 爲主로 金元四大家 및 明代 醫家들의 醫論을 窮究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에 따른 生理 病理 診斷 및 治方의 理致를 論述한 著述인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의 太陽病·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은 病證의 名目이며,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은 人物의 名目으로 兩者의 關係를 混同하지 않도록 깊이 洞察하여야 한다” 하였고, 《傷寒論》의 六經病 中에서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에 모두 있다하여 歷代 《傷寒論》 研究의 主題인 症狀分類 中心의 六經辨證에서 사람(四象人) 中心의 八種類의 臟腑病理論을 中心으로 하는 症狀分類로 轉換하는 契機가 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向後 鍼灸療法의 研究方向도 《傷寒論》의 六經分證에 따른 症狀 中心의 針灸治療 혹은 方劑에 따른 針灸處方의 構成하는 方法에서 사람(四象人)의 臟腑性理에 差異에 따른 鍼灸療法의 研究로 方向轉換이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IV. 結 論

《傷寒論》의 六經病 中 陽明病 提綱의 形成된 淵源 및 鍼灸學的 分經 및 分證의 運用 方法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繼承하여 發展되었고, 陽明病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으로 因해 陽明經으로 罹患 症狀 分類의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2. 《傷寒論》 注釋家들은 陽明病을 陽明은 多氣 多血하고 陽氣가 極盛하여 化熱 化燥하는 六經氣化的인 觀點에서 陽明經病과 府病을 區分하였고 府病에 重點을 두고 解釋하였다.
3. 《傷寒論》의 六經病 중 陽明病의 鍼灸治療의 穴位는 腹募穴과 背俞를 中心으로 手·足陽明經의 要穴을 “觀其脉證 知犯何逆 隨證取穴”의 辨證論治의 觀點에서 隨證配穴하여 用鍼한다.

V. 參考文獻

1. 이정훈, 윤종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1) : 181-200.
2. 이정훈, 윤종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6 (2) : 139-179.
3. 서용원, 윤종화, 김갑성. 馬王堆 出土醫書 中 《脉法》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1 : 210-224.
4.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종화. 古代 經脈病症體系에 있어 “是動則病” 과 “是主某所生病”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2 : 14-27.
5. 신광순, 장준혁, 윤종화.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2002 ; 9 (1) : 210-214.
6.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146-150.
7.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94-102.
8. 姜建國, 李樹沛. 傷寒析疑.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9 : 7, 21-23, 210-211.
9. 福州市人民醫院. 脉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344-485.
10. 錢超塵 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 1-332.
11.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1999 : 2-4.
12. 葉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 9-14, 90-130.
13. 朱肱 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서울 : 아티전. 1998 : 54.
14. 陳明, 劉燕貨, 張保偉 撰次整理.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1998 : 17-22, 212-217.
1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69, 162-163.
16.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2 : 178.
17. 葉橘泉 收藏.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 1-3.
18. 李心機. 《傷寒論》 疑難解讀.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9 : 40-41, 51-52, 69-76.
1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 12. 321-652.
20.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 華夏出版社. 1995 : 6-9. 48-51.
21.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 2.
22.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 95-99, 203-206.
23.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關한 研究. 서울 :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 : 101-106, 117.
24.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 183.
25. 成无己. 注解傷寒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6 : 54, 150.
26. 龐有執.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傷寒論條辨. 서울 : 大星出版社. 1995 : 775-7.
27.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尚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59.
28. 柯琴. 傷寒來蘇集·傷寒論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69-70, 103, 159-162, 181-186.
29. 吳謙 等編. 醫宗金鑑.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10, 120-121.
30. 陳恭薄. 近代中醫珍本集·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289-308.

31. 尤怡. 傷寒貫珠集.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8：2-3, 82-83.
32.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614-619.
33. 徐大椿. 徐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約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807, 856-857.
34. 陸懋修. 陸懋修醫學全集·《傷寒論》陽明病釋 四卷.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00：147-148.
35. 范式. 近代中醫珍本集·傷寒分冊·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542.
36. 黃元御. 黃元御醫書全集·傷寒懸解.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134.
37. 黃元御. 黃元御醫書全集·傷寒說意.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0：539-541.
38. 熊曼琪. 傷寒論.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2：444.
39. 楊璿. 傷寒瘟疫條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6：7-8.
40. 班固著, 李世烈解譯. 漢書藝文志. 서울：자유문고, 1995：306-321.
41. 從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4：114, 116-125.
42. 單玉堂. 傷寒論針灸配穴選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8：22-26, 36.
43. 劉孔藤. 經絡辨證概論. 廈門：廈門大學出版社. 1988：102-118.
44. 施士生校釋. 吳崑著. 鍼方六集校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1：271-316.
45. 高峰, 高立山. 鍼灸心傳. 北京：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 1993：114-170.
46. 韓東錫著.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誠理會出版社. 1967：117-122.